

# 담양죽세공예단지

## District of Bamboo Craftworks in Damyang

민형식 / (주)반종합건축 의전동인+남상금 / 남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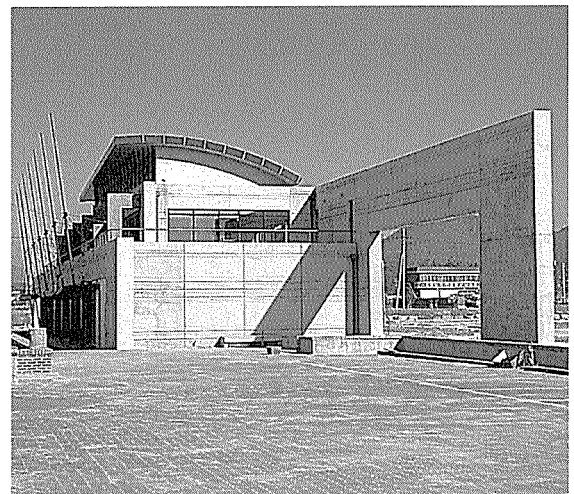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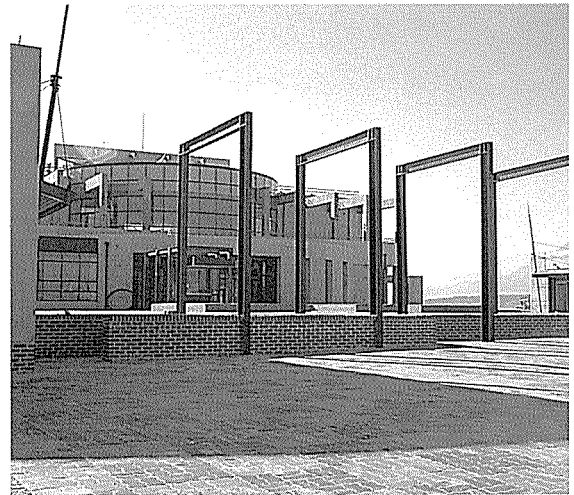
Designed by Min Hyeong-Shik & Nam Sang-Geum

우리의 시골정터는 이전 사라져가고 있지만 정겨움과 인간적인 삶의 참다운 모습이 담겨져 있다. 장날이 되면 새벽부터 상인들은 자리를 잡고 대나무 기둥을 세우고 줄을 이리저리 당겨 천막을 치느라 분주하다. 그리고 일시적인 폐쇄공간을 만든다.

인위적인 공간분할도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강가 등에 펼쳐져 서로가 어우러지는 축제 비슷한 장소가 만들어진다. 이 날은 단지 물건을 사고 파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이 동네 저 동네 얘기를 주고 받고 모처럼의 도시적인 흥미를 한껏 맛보고 지친 일손을 가누고 휴식을 즐기다 돌아가는 날이기도 하다. 어느덧 '민속' 이란 이름을 덧붙여 과거의 추억거리로만 삼으려 하건만 그 흥미진진한 장터 모습은 현대적인 장소로 재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판자지붕, 대나무 기둥, 천막, 줄 등은 현대건축의 형태요소들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이 프로젝트에 반영해 보고자 했다. 사실 건축의 전통문제에 관한 한 우린 지나치게 외향적인 형식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건축물 안에서만 해결코자 하는데서 오는 딜레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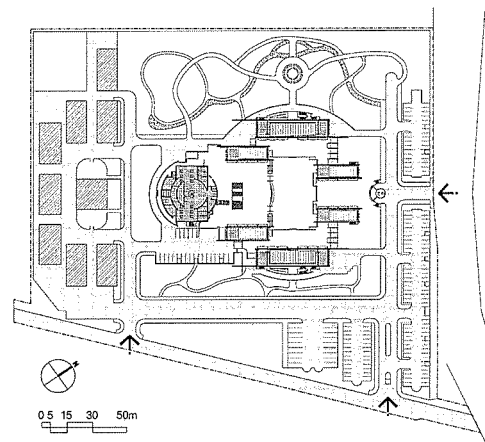
판매장의 개방적인 모습과 중심광장으로 압축되는 외부공간을 시골장터와 같은 접촉의 기회와 전통가람배치에서 볼 수 있는 아담한 스케일감을 중시하여 광장의 폭과 고저차, 판매장 건물의 길이와 높이, 그리고 중첩효과 등에서 전통적인 것들을 찾자 하였다.

그 황량한 벌판에 모뉴멘탈한 특성보다는 벽체와 건물로 인하여 폐쇄된 광장, 다시 주변 조경으로 에워싸인 단지의 인상이 도시의 윤곽을 드러내고 아이덴티티를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공사기간 동안 감리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된 점이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다. <글 / 남상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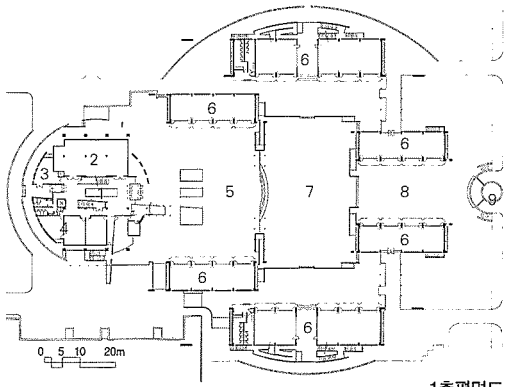


### 건축개요

대지위치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402-1외 49필지	
지역지구	생산녹지지역	
대지면적	50,363.0㎡	
건축면적	2,748.724㎡	
연면적	3,266.28㎡	
건폐율	5.457%	용적률 6.128%
용도	전시시설, 부속판매시설	
규모	전시동-2층/ 판매동(1,2,5,6)-1층/판매동(3,4)-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판매동지붕 일부 철골조)	
설계담당	조윤숙, 정방현, 조고웅, 이승상	



배치도



1층평면도

1. 전시동
2. 일반전시실
3. 수장고
4. 자료실
5. 전시광장
6. 판매장
7. 중심광장
8. 도입광장
9. 분수

